

휴일도 잊은 채 대회 준비 '구슬땀'

전북체육회, 전국소년체전 성공 개최 총력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익산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휴일도 잊은 채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라고 밝혔다.

최형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제56회 전북도민체육대회 등 잇달아 개최된 굵직한 대회를 치렀지만 지친 기색 없이 소년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도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북 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만큼 이번 소년체육대회 또한 잘 치러 '뽕겨 높은 전북, 체육 선진 도'의 이미지를 전국 시·도 선수들과 지도자, 관람객 등에 심어주기 위함이다.

이에 훈련 중인 선수들을 방문, 격려·지도하고, 각 종목별 경기장 시설

점검과 진행(준비)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물품(비품)과 용기구, 전산장비 설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대회운영본부와 심판대기실, 도광실 등 각종 용도실 점검, 종목별 의뢰지원 현황, 진행(보조)요원 확인 등 전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이외도 전북도와 도교육청, 전북경찰청 및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트레이너를 경기장에 파견시킬 예정이다.

최형원 도 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소년체육대회를 문화제전, 참여제전, 경제제전, 안전제전, 화합제전으로 치르기 위해 바느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전북을 찾는 모든 선수 및 관계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전북체육회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휴일도 잊은 채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소년체전 레슬링 경기.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최근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종목단체 총감독 간담회를

익산실내체육관 전북종합상환실에서 열고 막판 훈련 점검 등을 논의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입학사정관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일 2019년 입학사정관 직무유리 및 고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기록부 이해를 주제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임 입학사정관을 비롯한 교수입학사정관, 교수위촉입학사정관 등 모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한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와 평가업무의 정확성, 신뢰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0학년도 전북대 전형일정의 상세한 안내'에 이어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무 및 직무유리', '고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등의 주제를 놓고 외부 초청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참석자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의 신뢰성·공정성·전문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철운 입학본부장은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되는 등 입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평가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현실"이라며, "전임입학사정관들은 물론 교수·교수위촉사정관들을 대상으로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이 최근 공대 8호관 203호에서 '2019 광역연계 지역사회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북대서 광역연계 지역사회 혁신 워크숍 열려... 우수 공헌사례 발표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고영호 단장)은 최근 공대 8호관 203호에서 '2019 광역연계 지역사회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5개 권역별(호남제주권·충청권·대경강원권·동남권·수도권) 지역사회 공헌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혁신 프로그램 발굴을 목적으로 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대 주관으로 5개 대학(전북대-건국대-계명대-동명대-중앙대)의 LINC+사업단장 및 관련 교직원들이 광역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광역연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및 전문영역 구축을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가 이뤄졌다.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전북대학교는 '도시재생 RCC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 남부시장 하늘정원 문화소통공간 조성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건국대학교는 '리빙랩(Living Lab) 우수사례'를, 계명대학교는 '지역사회 협업 특화센터 사례'를, 동명대학교는 '지역사회 연계 활동사례'를, 중앙대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사례'를 발표했다.

고영호 전북대 LINC+ 사업단장은

"각 권역의 대학 간 광역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학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 새로운 공동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된 지역사회 혁신 대표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 후 전북대 LINC+사업단에서는 전통성당에서 개최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바로크연주회(전북대 음악과)'에 동반 참석해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기자

전북 농업교육의 비전 제시

영농학생 전진대회 오늘 전주생명과학고서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제48년차 전북 FFK(영농학생) 전진대회를 21~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FFK 전북지부, (사)한국농업교육협회 전북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자연을 생각하는 농업, 사람과 하나 되는 농업을 주제로 이틀간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공경진, 과제이수발표, 실무능력경진, FFK골든벨, 기타(예술제) 등 총 5개 분야 23개 종목이 펼쳐지며, 도내 9개 농업계 특성화고교에서 280명 35여명의 학생이 출전해 전공지식과 기

량을 겨룬다. 대회 기간 중 농업관련 동아리 활동 및 홍보 부스도 전 시된다.

1등급(금상) 28팀과 2등급(은상) 40팀에는 전라북도교육감상, 3등급(동상) 및 특기발표 입상자 88팀에는 (사)한국농업교육협회 전북지부 장상을 각각 수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FFK 전진대회를 통해 전북의 농업과 농업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참가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실기능력의 최고수준에 도전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역량강화 연수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감 및 전문직 90명을 대상으로 20~21일, 30~31일 두 차례에 걸쳐 연수를 진행하며, 학교 내 학생 및 교원의 성관련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를 보완해 관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안처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과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형별 성폭력 사례를 분석,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교직원 성범죄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수는 성인지 감수성 점검과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 드라마 역할극 참여, 토론, 사례분석 토의, 관련법과 판례를 통한 사례 분석 등 교육자가 스스로 학교 현장의 성인지 향상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를 찾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해 성비위 없는 안전한 건강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성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올바른 성인권의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놀이중심 교육활동 활성화 나서

유치원 교원 대상 연수 실시

전북도교육청이 놀이중심 교육활동 활성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공·사립유치원 교원 6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동시·그림책 등을 활용한 연극놀이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1, 2차로 나눠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된다. 유아주도의 창의적 교실문화를 만들어가는 교사 역할을 제고하고, 유아교육 본질에 근거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극놀이를 접근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강의, 놀이참여, 현장적용, 소그룹 토의까지 이어지면서 실용성 있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첫 번째 시간에는 ▲연극놀이란

무엇인가와 시를 활용한 연극놀이 연수가 이뤄졌다.

이어 ▲6월에는 그림책과 이야기를 활용한 연극놀이 ▲7월 누리과정 생활주제와 연계한 연극놀이 과정이 진행된다. 9~11월에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2차시 교육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연극놀이 프로그램 도출과정을 탐색하고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관리자, 전문직, 교사 등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면서, "유아교육 본질에 근거한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으로 유아·교사·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